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펼쳐진 핑크 골드와 시계의 새로운 만남

예거 르쿨트르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101 컬렉션의 새로운 핑크 골드 두 가지 모델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세련된 실루엣이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성을 위해 제작된 101 컬렉션의 이름은 유서 깊은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과 완벽한 주얼리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진귀한 역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29 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의 특별한 역사는 전 제작 과정을 담당한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 그랑 메종의 매뉴팩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의 뛰어난 조화로 구현된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은 다이아몬드의 광채 아래, 지극히 미세한 부품의 비밀을 간직한 전통 노하우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101 렌즈와 101 피어유의 핑크 골드 버전이 낮과 밤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기회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선사합니다.

두 개의 주얼리 위치에서 살아 숨 쉬는 미니어처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01 은 1929 년부터 뛰어난 미니어처 제작 기술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포켓 위치는 세련된 디자인과 정밀한 기능이 결합한 주얼리를 손목에 착용하길 꿈꿨던 여성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손목시계에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수평으로 중첩된 두 개의 플랜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 저명한 듀오플랜 무브먼트에 영감을 얻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로 자리 잡은 이 모델은 거의 한 세기에 걸쳐 계승되어온 전문 기술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이 14mm, 너비 4.8mm, 두께가 3.4mm 인 0.2cm³ 크기로 제작된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01 의 전 모델에는 특별함이 깃들여 있으며, 각각의 부품은 맞춤 제작되어 조정되었습니다. 겨우 1g 정도의 무게를 지닌 이 미니어처 무브먼트는 정밀성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세심한 조립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워치메이커들이 98 개의 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했습니다. 시간당 21,600 회의 진동수를 자랑하는 밸런스 휠 역시 정밀성 분야의 대담한 도전으로 탄생했습니다.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부터 순수한 주얼리에 이르기까지

아이코닉한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01 은 여성들의 다채로운 취향에 만족을 선사하며 여러 시대와 다양한 스타일을 거쳐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핑크 골드 모델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01 렌즈와 101 피이유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만의 매력적인 세계를 반영하여 매뉴팩처 워크샵에서 각각 110 개의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11 캐럿)와 167 개의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10.3 캐럿)를 수작업으로 하나씩 촘촘하게 장식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합니다. 실버 오팔린 다이얼에 장식된 간결한 실루엣의 바통 핸즈 2 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력과 놀라운 주얼리의 결합을 돋보이게 해줄 소재로 핑크 골드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을까요? 세월을 초월하는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이 진귀한 소재는 자신이 맡은 새로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완성하였습니다. 101 렌즈 모델은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반면에, 101 피이유 모델은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사귀 모양을 섬세하게 본뜬 커버는 원할 때마다 여단을 수 있어, 흐르는 시간을 더욱 우아하게 빛내 줍니다. 바게트 컷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앞사귀 모티프의 곡선 아래에는 비밀스런 시계 메커니즘으로 시계 다이얼이 모습을 드러내거나 감춥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주인공인 시계 메커니즘을 위한 매혹적인 의상과도 같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제 7 의 예술인 영화계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며 대담한 독창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8 베니스 국제 영화제의 파트너가 된 매뉴팩처는 영화계의 스타 및 여배우들은 물론, 삶의 매 장면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재능을 지닌 모든 여성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SIHH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101 렌즈와 101 피이유의 새로운 핑크 골드 모델은 더없이 완벽한 무대가 되어 주는 아름다운 베니스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아한 레드 카펫 위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시계와 하이 주얼리 중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시계와 하이 주얼리가 하나가 되어 매일 여성의 눈을 부시게 할 예거 르쿨트르의 101 컬렉션입니다.

2018년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호모 파베르에서 럭셔리 분야의 장인들을 만나보세요.

9 월 14 일부터 30 일까지, 베니스 **호모 파베르(Homo Faber)**의 *발견과 재발견(Discovery and Rediscovery)* 전시회에서 유럽 럭셔리 분야 장인들이 보유한 놀라운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는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인 미켈란젤로 재단(Fondation Michelangelo)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장인 정신을 보존하고, 독창성과 디자인 세계와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번 행사를 통해, 1929 년에 출시된 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로 자리매김한, 그랑 메종 워치메이커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상징하는 칼리버 101 모델을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homofaberev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